

실용적 지식 집대성한 백과전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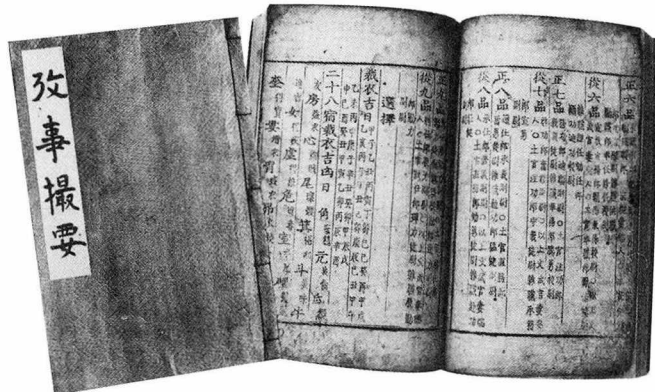
16세기 《고사촬요》가 효시... 세계로 시야 넓힌 《지봉유설》

조선전기, 가령 지금으로부터 약350년전인 16세기 중반 무렵의 책값은 얼마나 했을까. 조선시대에 민간업자들에 의한 상업출판이 비롯된 것은 대략 17세기 중엽부터의 일이라는 것이 통설이지만, 국가의 공식 출판기관인 교서관(校書館)에서 발행한 각종 책을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서사(書肆·서점)를 따로 설치한 것은 명종(1546~1567) 연간의 일이다.

1554년(명종 9) 어숙권(魚叔權)이 편찬한 《고사촬요(攷事撮要)》(3권3책)란 책에는 '서책시준(書冊市准)'이란 항목 아래 당시 교서관에서 간행한 32종의 책에 대한 판매 가격이 적혀 있어 자못 흥미를 끈다. 가격은 소요 종이량과 함께 면포(綿布) 또는 쌀로 표시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은 쌀 1말, 《중용》은 쌀 1말 닷되, 《맹자》는 면포 1필 또는 쌀 2말, 《향약집성방》은 면포 5필반, 《고문진보》는 면포 반필 또는 쌀 닷되 등이다. 요즘에 비해 굉장히 높은 가격인 셈이다.

이 《고사촬요》에는 이밖에도 대명(大明) 관계 기사를 비롯, 당시의 관직·제도·풍속·지리 등이 80여 항목으로 나뉘어 기술돼 있다. 예전에는 이처럼 여기저기서 발췌한 내용을 이용에 편리하게 분류·편찬한 책을 '유서(類書)'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백과사전적인 성격의 책이다.

특기할 것은, 앞의 '서책시준' 외에도 당시 전국 각지역에 산재한 989종의 책판(冊板·책을 찍어내는 목판) 목록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현존하는 이 책의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적 저술인 《고사촬요》 올해자본. 이 책에는 매우 값진 서지학적 정보가 실려 있다.

가장 오래된 간본인 올해자본(1568)의 복각본(1576)이 민간업자에 의한 상업출판물인 방각본(坊刻本)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는 데서 국내 서지학계에서는 이 책을 매우 소중히 다루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백과사전류의 효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백과사전류로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20권20책·1589)이나 《지봉유설(芝峰類說)》(20권10책·1614)을 꼽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조 때 학자인 권문해(權文海, 1534~1591)가 편찬한 《대동운부군옥》은 단군시대로부터 선조 때에 이르기까지의 나라이름·지리를 비롯하여 성씨·인물·산이름·나무이름·꽃이름·동물이름 등을 운자(韻字)의 차례로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의 명저들을 널리 참고함으로써 임진왜란 이전의 개인 저서로는 가장 우수한 역저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 책은 임진왜란 때문에 간행되지 못한 채 필사본으로만 전하다가

순조때인 1812~1836년에 그 후손에 의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이 책의 고본(稿本)과 함께 책판 667매가 현재 경북 예천의 종손댁에 간직돼 있다. (보물 878호) 晡

《지봉유설》은 유명한 지봉 이수광(李 光, 1563~1628)이 편찬한 것으로 아주 흥미로운 책이다. 내용은 천문·지리에서 경서·문장·인물·기예·궁실·식물(食物)·획목(조목)·금충(새와 곤충)에 이르기까지 25부문 3,435항목에 걸쳐 저자 자신이 보고 듣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에 인용된 책은 무려 348종, 등장인명만도 2,265명에 이른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천주교를 최초로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 여러 나라의 문물을 소략하게나마 소개하여 당시 지식인들의 시야를 세계로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봉 이수광은 그 실학적인 학풍으로 하여 뒤에 오는 이른바 '백과전서파(百科全書派)'의 비조(鼻祖)로 일러진다. (이 항목, 다음호에 이어짐) (W)

출판저널

통권 제223호 / 1997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연
 기자 — 마정미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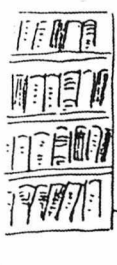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금: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품위있는 책을 만드시렵니까!!

센스있는 표지부터 구상하십시오



아무리 내용이 좋은 良書라도
 表紙의 뛰어난 센스가 표출되지 않으면
 독자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Creative Design

SenseBook

서울·중구 중무로37가 24-12 본고/D 6층 TEL:274-2917 FAX:285-2918

BLANK BOXES · ILLUSTRATION BANK

빈 칸 만들기

ILLUSTRATION
 CARTOON
 PHOTOGRAPH
 PUBLISH TOTAL DESIGN
 FINE ART WORK

서울 권역구 신림동 1666-56 대동 B/D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휴대폰 011-769-4350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
 40,000원
 * 반년분(11호)
 22,000원